돈사 신축 후 MSY 16두에서 28두까지, 서원농장의 성공스토리

곽상민 기자 입력 2023.10.27 | 수정 2023.10.30 | 댓글 1

'제42회 전국양돈세미나'서 제기된 심응식 대표 주제발표 주요 내용은

서울 직장생활부터 농장 대표까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축 결심

신축 후 경험한 돈사설비 꿀팁 제공… 가성비 '대형휀+중계휀' 조합 등

MSY 28두 달성 위해 실행한 일들… 충분한 조명 제공, 설탕 및 **단탑 급여**

동물복지 위한 임신돈 군사사육 제도 문제점도… 투쟁으로 지제 발생 多

▲ 지난 25일 연암대학교 연암관에서 '한돈의 뉴 패러다임-시스템과 소통, 스토리'라는 주제로 '제42회 전국양돈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아버지가 운영하던 구 돈사를 새롭게 신축하고 세밀한 사양관리를 더해 MSY 16두에서 28두까지 올린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사)한국양돈연구회(회장 강권)가 지난 10월 25일 연암대학교 연암관에서 '한돈의 뉴패러다임-시스템과 소통, 스토리'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2회 전국양돈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심응식 서원농장 대표는 본인이 겪었던 가업승계 과정부터 돈사 신축 후 경험한 설비 시 꿀팁, 생산성적 상승 비결 등을 공유했다.

▲ 서원농장 심응식 대표가 '돈사 건축부터 MSY 28두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서울 직장생활에서 농장 승계까지
양돈 공부하며 생산성 상위권 꿈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축 결정

10년 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심응식 대표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가업승계 여부를 듣고 기로에 서게 된다. 수많은 고민 끝에 가업승계를 결정한 심 대표는 1982년부터 양돈장을 운영하신 아버지와 함께 양돈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믿음과 인정을 받아 농장에 들어간 지 3년만에 가업 승계를 완료한 심 대표는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운영하는 'CEO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양돈사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

심 대표는 "CEO 대학을 통해 여러 농장을 돌아보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다보니 저도 MSY 25~26두까지 할 수 있다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돈사 신축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신축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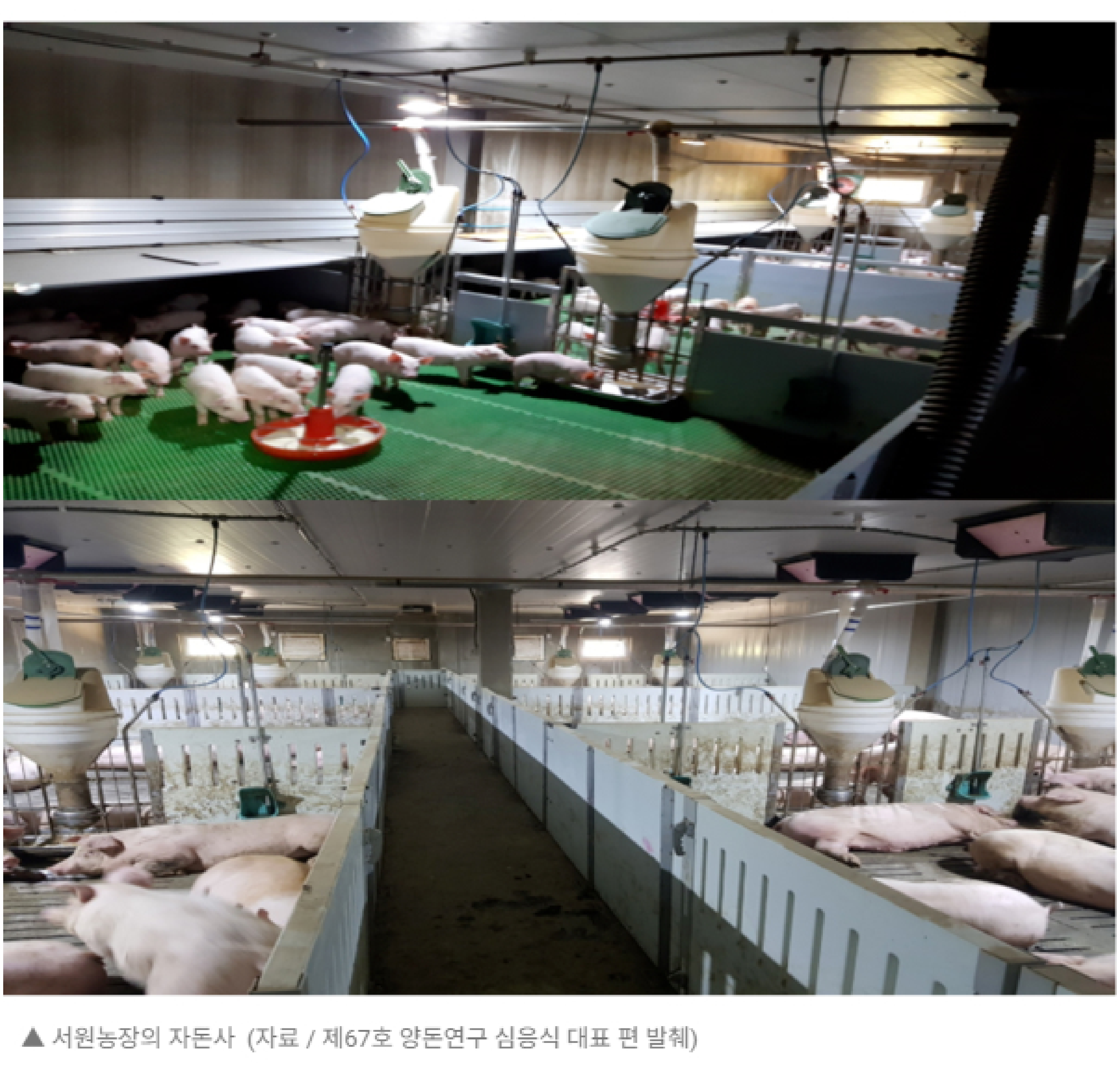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돈사 신축을 준비하며 운 좋게 농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지원 받게 되고, 오랜 기간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신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돈사 신축 후 심 대표가 추천하는 돈사 설비는?
혹서기 대비용 가성비 조합 '대형휀+중계휀'
충분한 물 공급 위한 급수라인은 충분하게
액비순환 시스템 정화조 용량은 1.5배 이상

심응식 대표는 모돈 200두 규모의 일괄돈사를 신축 후 7년간 운영하면서 느꼈던 꿀팁도 아끼지 않았다.

먼저 혹서기를 대비하기 위해 임신사에 설치한 1,200 파이 크기의 대형 휀(양계용) + 중계 휀 조합으로 활용한 결과 돈사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 휀이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중계휀과 같이 사용했을 때 (대형휀) 힘이 좋아 쿨링패드만 틀어 놓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다"고 설명했다.

▲ 서원농장의 임신후기사(군사방) (자료 / 제67호 양돈연구 심응식 대표 편 발췌)



▲ 서원농장의 자돈사 (자료 / 제67호 양돈연구 심응식 대표 편 발췌)

또한 심 대표는 돼지에게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임신·분만사에는 모돈 1두당 1개의 급수라인을, 육성·비육사도 충분한 급수라인을 설비했다. 심 대표는 "급수라인은 많을수록 니플 고장도 줄고 원활한 급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비하길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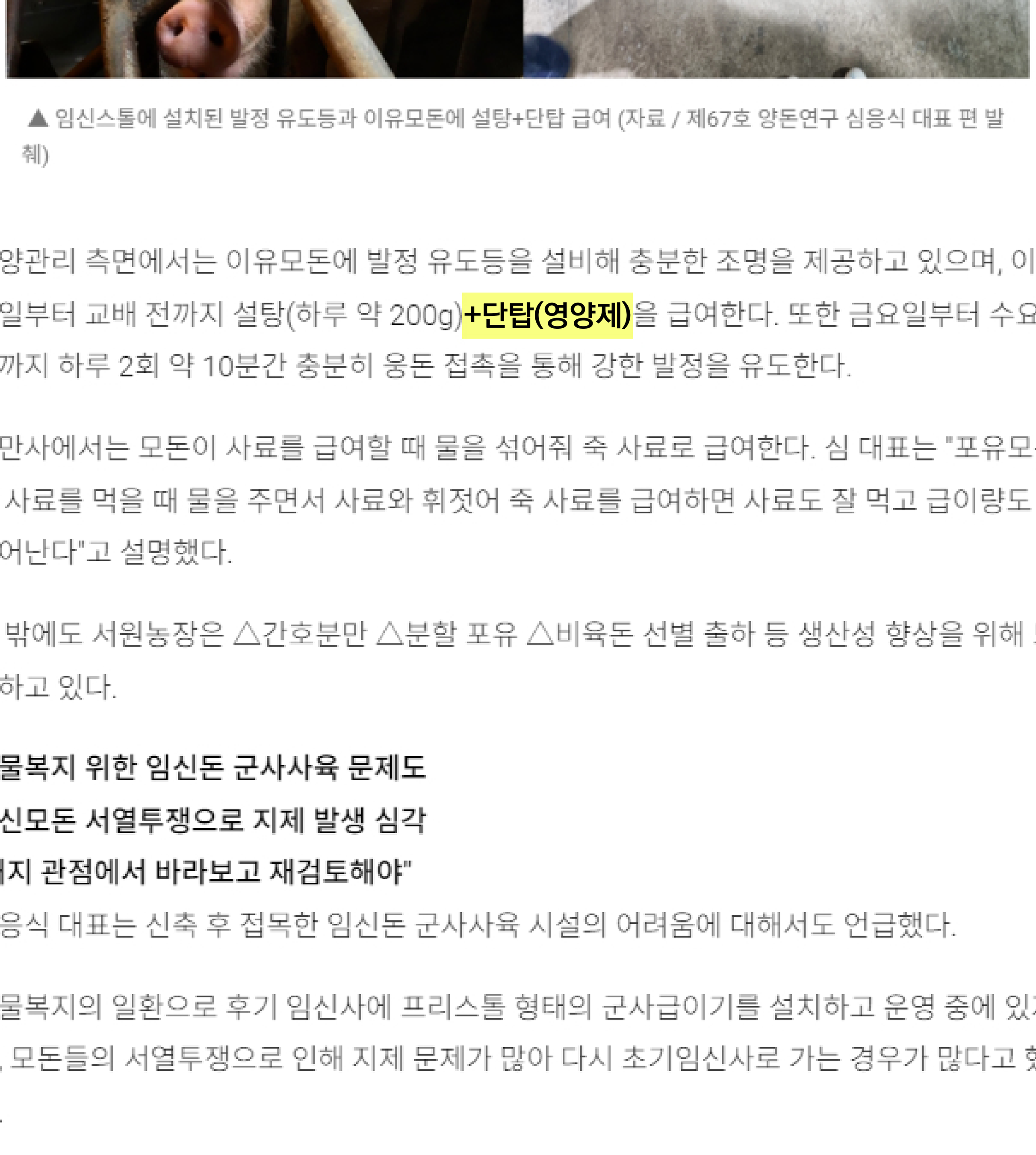
이 밖에도 심 대표는 액비순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화조의 권장 필요량보다 1.5배 이상 더 증축해 설비할 것을 당부했다.

심 대표는 "신축 공사 전 액비순환 시스템을 설비한 몇 농가를 견학했는데, 정화조 관리를 잘 못하면 생똥 그대로 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액비순환 시스템을 잘 운영하려면 정화조의 필요 권장량보다 1.5배 이상 더 여유롭게 설비하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MSY 28두 되기까지 실행한 일들은?… 아버지-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
이유모돈에 충분한 조명 및 설탕+단탑 제공, 포유모돈은 죽 사료 급여

심 대표는 가업 승계 이후에도 원활한 농장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직원이 잘못을 해도 심 대표는 한 번도 혼내지 않고 잘했을 땐 칭찬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제공했다.

심 대표는 "직원이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절대로 혼내지 않는다. 모두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준다. 또 직원이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임신스톨에 설치된 발정 유도등과 이유모돈에 설탕+단탑 급여 (자료 / 제67호 양돈연구 심응식 대표 편 발췌)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이유모돈에 발정 유도등을 설비해 충분한 조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유당일부터 교배 전까지 설탕(하루 약 200g)**+단탑(영양제)**을 급여한다. 또한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루 2회 약 10분간 충분히 웅돈 접촉을 통해 강한 발정을 유도한다.

분만사에서는 모돈이 사료를 급여할 때 물을 섞어줘 죽 사료로 급여한다. 심 대표는 "포유모돈이 사료를 먹을 때 물을 주면서 사료와 휘젓어 죽 사료를 급여하면 사료도 잘 먹고 급이량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원농장은 △간호분만 △분할 포유 △비육돈 선별 출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물복지 위한 임신돈 군사사육 문제도
임신모돈 서열투쟁으로 지제 발생 심각
"돼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검토해야"

심응식 대표는 신축 후 접목한 임신돈 군사사육 시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후기 임신사에 프리스톨 형태의 군사급이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지만, 모돈들의 서열투쟁으로 인해 지제 문제가 많아 다시 초기임신사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심 대표는 "초기 임신사 스톨을 여유롭게 배치했는데, 지금은 거의 차있는 상태다. 임신 후기에 군사돈방으로 넘어가면 서열투쟁이 심해 지제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힘들다며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임신돈 군사돈방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민 기자】

인터넷신문 Pig&Pork 한돈